

<2019. 2. 23 시행 서울시 9급 공무원 문항 분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선사시대	13			
고대	3, 4		12	
중세	1, 14, 18			8
근세	9, 11	20		5
근대태동기	7			
근대개항기	2, 6, 17			
일제강점기	16, 19			
현대	15	10		

< 총 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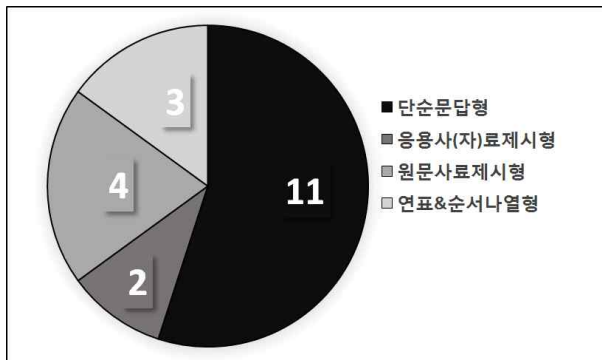
2019년 2월 서울시 9급 한국사의 난이도는 작년 3월 서울시 9급보다는 확실히 쉽게 출제되었다. 문항 유형은 단순문답형 문제가 11개, 자료 제시형 문제가 6개, 순서나열형 문제는 3문제 출제되었다. 작년의 출제경향과는 유사하게 **단순문답형 문제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시대사로는 전근대사는 13문제, 근현대사는 7문제가 출제되었다. 시대사 별로 비교적 고르게 문제가 포진된 편이었으나, 근대 태동기에서는 1문제만 출제되었다.

분류사로는 **정치사가 15문제, 경제·사회사에서 3문제, 문화사가 2문제 출제**되었다. 경제·사회사는 작년과 유사하게 3문제 정도 출제되었으며, 정치사의 비중이 약간 늘고 문화사의 비중이 대폭 줄어 들었다.

이번 시험에서 변별력 있는 문항은 주로 정치사에서 나왔다. 8번 문항의 혼요 십조, 대장경 관련 선지 정도가 변별력을 높인 문항들이었다.

<출제 문항 유형 분석>



<문항 주제 분석>

문항 번호	출제 분류	출제 주제	난이도
1	중세 정치	원 간섭기 국가 체제	중하
2	근대 정치	국권 피탈 과정	중
3	고대 정치	법흥왕	중
4	고대 정치	고구려의 대중국 투쟁	중
5	근세 문화	경국대전	중하
6	근대 정치	조·일 수호 조규	중
7	근대기 정치	영조	중
8	중세 문화	고려시대 불교 문화	중상
9	근세 정치	조선의 중앙 통치기구	중
10	현대 경제	1960년대 경제정책	중
11	근세 정치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중
12	고대 사회	골품제	하
13	선사	여러나라의 성장(부여)	중하
14	중세 정치	무신정권기 정치·문화	중
15	현대 정치	정부 수립과정	중
16	일제 정치	1910년대 국외 무장투쟁	중
17	근대 정치	대한제국	중하
18	중세 정치	고려의 정치 상황	중
19	일제 정치	신간회	중하
20	근세 경제	과전법	중

< 변별력 있는 문항 분석 >

문항 번호	출제 주제	특징
8번	고려시대 불교 문화	태조의 혼요 십조에서 사찰을 함부로 짓지 말 것을 당부한 내용, 현종 때 대장경이 송나라 대장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비교적 지엽적인 사실들을 선지로 제시하여 문제의 변별력을 높였다.

정답(A책형 기준)

1. ③	2. ③	3. ③	4. ①	5. ②
6. ②	7. ①	8. ④	9. ①	10. ④
11. ①	12. ④	13. ④	14. ③	15. ①
16. ①	17. ④	18. ④	19. ②	20. ③

1. 원 간섭기의 정치 상황

정답 : ③

③ 원 간섭기에 고려는 원의 압력으로 인해 관제의 격을 낮추었다. 이에 따라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이 합쳐 첨의부로, 6부는 4사로 통합되었다.

오답분석 : ① 원 간섭기에 원의 직할지로 편입된 지역은 고려 전체가 아니라 철령 이북 지역(쌍성총관부 설치), 자비령 이북 지역(동녕부 설치), 제주도(탐라총관부 설치)이다. ② 정동행성의 승상(장관)은 고려 국왕이 겸직하였다. ④ 대마리지는 고려 연개소문의 집권 이후 신설된 고려 관직으로, 국경과 군사 모두 장악한 최고 관직이었다.

(2019년 해법국가 1권 원의 내정 간섭 235~236쪽)
(2019년 필기노트 원의 내정간섭 50쪽)

2. 대한제국 시기의 국권 피탈

정답 : ③

㉠ 1904년 1차 한일 협약에 따라 일본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 1명을 제정 고문, 외국인 1명을 외교 고문으로 채용하였다. ㉡ 1905년 을사조약의 체결에 따라 일본은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다음해 2월에 통감부를 설치하였다. ㉢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고종은 을사조약의 무효를 선언하고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하여 일제의 만행을 널리 알리고자 하였다. ㉣ 1907년 정미조약의 체결에 따라 일본은 대한제국의 각 부에 일본인을 차관으로 임명하여 내정 간섭을 더욱 강화하였다.

(2019 해법국가 2권 러일 전쟁과 일제의 침략 강화 674쪽 / 을사조약과 한일 신협약 675~676)
(2019년 필기노트 일제의 침략과 국권 피탈 131쪽)

3. 법흥왕

정답 : ③

제시된 자료의 밑줄 친 ‘왕’은 신라 법흥왕이다. ㉠ 법흥왕 때 건립된 울진 천전리 서석에서는 ‘성법흥대왕’(혹은 성법흥태왕)이라는 표현이 있어 당시 법흥왕을 성법흥대왕이라고 칭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 법흥왕 때 울진 봉평비를 건립하였다. 울진 봉평비에는 ‘신라 육부’가 새겨져 있어, 당시 국왕이 6부의 대표자나 귀족들과 함께 국가 중대사를 논의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분석 : ㉠ 지증왕 때의 일이다. ㉣ 진흥왕 때의 일이다. ㉢ 선덕여왕 때의 일이다.

(2019년 해법국가 1권 신라의 발전 88~89쪽 • 92쪽)
(2019년 필기노트 신라의 발전 21쪽)

4. 고구려의 대중국 투쟁

정답 : ①

① 6세기 말, 수나라를 견제할 목적으로 영양왕이 1만 명의 말갈 병사를 보내 요서 지방을 선제공격하였다.

오답분석 : ② 고구려는 당 건국 이후, 당나라의 침략에 대비하고자 국경에 천리장성을 쌓았다. ③ 을지문덕은 수나라 양제의 침략을 살수대첩으로 막아냈다. ④ 안시성 성주인 양만춘은 당 태종의 침략을 안시성에서 격퇴하였다(645, 안시성 전투).

(2019년 해법국가 1권 고구려와 수·당 전쟁 94~95쪽)
(2019년 필기노트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 23쪽)

5. 경국대전

정답 : ②

제시된 자료의 밑줄 친 ‘이것’은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이다. ② 조준이 편찬한 법전은 ‘경제육전’으로, 조선 태조 때의 일이다.

오답 분석 : ① ‘경국대전’은 성종 때 완성되었다. ③ ‘경국대전’은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의 6전으로 구성되었다. ④ 세조 때 만세불변의 법전을 만들기 위해 ‘경국대전’의 편찬 사업을 시작했으나 완성하지는 못하였다.

(2019년 해법국가 1권 윤리·의례서와 법전의 편찬 441쪽)
(2019년 필기노트 법률제도와 법전 83쪽)

6. 조·일 수호 조규

정답 : ②

② 1976년에 체결된 조·일 수호 조규의 4판에서는 부산에 일본 공관을 두어 무역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분석 : ① 조·일 수호 조규의 1판에 규정된 내용이다. ③ 조·일 수호 조규의 10판의 내용으로, 일본인이 조선이 지정한 각 항구에서 죄를 범했을 경우 일본의 법률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치외법권을 인정하고 있다. ④ 조·일 수호 조규의 7판에 규정된 내용으로, 일본의 연해 측량권을 인정하고 있다.

(2019년 해법국가 2권 강화도 조약의 체결 616쪽)
(2019년 필기노트 1870~1880년대 조약 체결 120쪽)

7. 영조

정답 : ①

① 영조 때 형벌제도를 개선하여 가혹한 형벌을 폐지하고, 사형수에 대한 삼심제를 엄격하게 시행하였다. ㉢ 영조 때 서울 시민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청계천을 준설하여 도시를 재정비하였다. 영조는 청계천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준설 작업을 추진하였는데, 약 60일 동안 약 21만 명의 인원이 동원되어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오답 분석 : ㉠ 서얼 출신 학자를 검서관으로 발탁한 것은 정조 때의 일이다. 서얼과 노비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고자 노력한 것은 영조와 정조 둘 다 해당한다. ㉢ 흥선대원군 때 실시된 호포법에 대한 설명이다.

(2019년 해법국가 1권 탕평 정치의 전개 481~484쪽)
(2019년 해법국가 2권 흥선 대원군의 대내 정책 610쪽)
(2019년 필기노트 영조의 정책 97쪽)

8. 고려의 불교 문화

정답 : ④

④ 향도는 불교 신앙에 바탕을 둔 농민 공동체 조직으로, 고려 시대 이전부터 존재하였지만 고려 시대에 집중적으로 등장하였다. 고려 시대에는 향도를 통해 신앙의 결속을 다지고, 매향 활동을 하여 미륵불이 미래가 아닌 현세에 내려와 백성을 구제해 주기를 기원하기도 하였다.

오답 분석 : ① 태조는 혼요십조에서 모든 사원은 다 도선이 산수에 따라 개창한 것이니 함부로 사원을 지어 지덕을 손상하지 말라고 하였다. ② 현종 때부터 송나라 대장경을 바탕으로, 고려의 독자적인 대장경인 초조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거란의 대장경은 의천의 교장(속장경)에 영향을 주었다. ③ 균여가 아니라 의천에 대한 설명이다. 광종 때 균여는 귀법사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화엄종 중심으로 법상종을 흡수하여 교종을 통합하려 하였다.

(2019년 해법국사 1권 태조, 206쪽 / 농민의 공동 조직, 277쪽 / 불교의 발전, 294~297쪽)

(2019년 필기노트, 고려의 불교 정책, 58쪽 / 고려의 승려, 59쪽)

9. 조선시대 중앙통치기구

정답 : ①

① 홍문관에 대한 설명이다. 예문관은 임금의 교지를 작성하거나 국무회의에서 사관으로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오답 분석 : ② 사간원은 정책이나 잘못된 것에 대해 비판하는 간쟁기관이다. ③ 승정원은 국왕의 비서 기관으로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였다. ④ 의금부는 국왕 직속 특별 사법 기관으로 주로 대역죄를 다루었다.

(2019년 해법국사 1권, 중앙의 정치 조직, 349~351쪽)

(2019년 필기노트, 중앙 정치 기구, 67~68쪽)

10. 1960년대 경제

정답 : ④

④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된 것은 1962년부터 1966년까지이다.

오답 분석 : ① 귀속재산처리법은 1949년에 제정되었다. ② 한·미 경제 조정 협정은 1952년 이승만 정부와 미국 정부가 이미 제공되고 있는 미국의 경제 원조와 관련해 양자 간의 관계 조정을 하고자 체결한 조약이다. ③ 1990년대의 일이다. 김영삼 정부는 1996년에 경제 협력 개발 기구에 가입하였다.

(2019년 해법국사 2권, 광복 이후의 경제적 상황과 6·25 전쟁 전후 복구, 954~956쪽 / 경제 성장과 자본주의의 발전, 956쪽 + 959쪽)

(2019년 필기노트, 경제 발전과 사회문화의 변화, 175~177쪽)

11.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정답 : ①

① 조선은 화이관에 바탕을 두고, 사대교린을 기본 방침으로 대외 정책을 전개하였다. 명에 대해서는 큰 나라이자 문명국을 섬긴다는 '사대'를 원칙으로 외교 관계를 맺었다. 그 밖에 여진과 일본 등에 대한 외교는 이웃나라와 평화롭게 교류한다는 '교린'을 원칙으로 삼았다.

오답 분석 : ② 고려 전기에 추진된 대외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고려는 태조 때부터 고구려 옛 땅을 회복하려는 북진 정책을 추진하였다. ③ 조선은 국경의 안정을 위해 일본과 여진에 대해서는 강경책과 회유책을 적절히 펼쳤다. ④ 조선은 태국, 자바 등 동남아시아의 국가들과도 문물을 교류하였다.

(2019년 해법국사 1권, 거란의 침입과 격퇴, 218쪽 / 명과의 관계, 369쪽 / 여진과의 관계, 369쪽 / 일본 및 동남아시아와의 관계, 370~371쪽)

(2019년 필기노트, 조선의 대외 관계와 양반의 극복, 75~76쪽)

12. 신라의 골품제도

정답 : ④

제시된 자료의 ㉠은 골품으로, 신라시대에 골품제에 따른 정치 활동 제약과 관련된 내용이다. ④ 골품은 신라 사회에서 개인의 사회 활동과 정치 활동의 범위까지 엄격히 제한하여, 골품에 따라 관등 승진의 상한선을 결정하였다.

오답 분석 : ① 골품제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다. ② 골품제는 신라가 멸망할 때까지 존속하였다. ③ 진골은 대아찬 이상의 고위 관등만 받는 신분이 아니라 모든 관등에 진출할 수 있는, 관등에 제한이 없는 신분이다.

(2019년 해법국사 1권, 고대 국가의 신분과 사회 모습, 143쪽)

(2019년 필기노트, 신라의 골품제도, 31쪽)

13. 여러 나라의 성장(부여)

정답 : ④

제시된 자료는 부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④ 부여에서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오곡이 잘 익지 않으면 그 책임을 왕에게 물어 왕을 교체하기도 하였다.

오답 분석 : ① 삼한(마한)에서는 소와 말을 순장하는 풍습이 있었으며, 또한 진한과 변한에서는 큰 새의 깃털을 이용하여 죽은 자의 승전을 빌었다. ②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다. ③ 삼한에 대한 설명이다.

(2019년 해법국사 1권, 부여, 50쪽 / 초기 고구려, 53쪽 / 삼한, 57~58쪽)

(2019년 필기노트, 여러나라의 성장, 13~15쪽)

14. 고려 무신정권

정답 : ③

③ 김보당과 조위충이 난을 일으킨 것은 최충헌 집권 이전의 일이다. 김보당의 난(1173)과 조위충의 난(1174)은 둘 다 정중부 집권기에 일어났다.

오답 분석 : ① 무신 집권기 초반, 정치는 상장군과 대장군으로 구성된 기존의 회의기구인 중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② 최충헌은 교정도감을 설치하여 인사 행정 및 재정권까지 담당하는 최고 집정부로 강화하였다. 또한 최우는 정방과 서방을 자기 집에 설치하여 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였다. ④ 무신 집권기의 문신인 이규보는 '동명왕편'을 저술하여 고구려의 전통을 강조하였다.

(2019년 해법국사 1권, 무신 정변, 227~228쪽 / 무신 집권기의 사회 동요, 229쪽 / 역사서의 편찬, 305쪽)

(2019년 필기노트, 무신 정권기의 정치 변동과 집권기구, 48쪽)

15. 정부 수립 과정

정답 : ㉠

㉠ 1946년 6월 이승만은 전라북도 정읍에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공식적으로 주장하였다(정읍 발언). ㉡ 1946년 10월에 좌우 합작 위원회는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다. ㉢ 1947년 5월에 2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미·소 간에 이해가 엇갈려 결렬되었다. ㉣ 1948년 2월 유엔 소총회는 선거가 가능한 지역(남한)에서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미국의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2019년 해법국사 2권, 좌우 대립과 좌우 합작 운동, 881~882쪽 / 단독 정부 수립 결정과 반대, 883쪽)

(2019년 필기노트, 좌우 대립과 좌우 합작 운동, 163쪽 / 단독 정부 수립 결정과 반대, 163쪽)

16. 남만주(서간도) 지역의 독립운동

정답 : ㉠

제시된 자료의 이회영 등은 남만주(서간도)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였다. ㉠ 이회영을 비롯한 6형제는 전 재산을 처분하고 전 가족이 남만주로 망명하여 경학사와 신흥 강습소를 설립하였다.

오답분석 : ㉡ 연해주 지역에서 추진된 독립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 북간도 지역에서 추진된 독립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 독립의군부 등 북벌주의 단체에 대한 설명이다.

(2019년 해법국사 2권, 1910년대 국내의 민족운동, 786쪽 / 1910년대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 799~800쪽)

(2019년 필기노트, 무장 독립 전쟁의 전개, 151쪽)

17. 대한제국

정답 : ㉣

㉣ 흥선 대원군 집권 시기에 비변사를 축소·격하시켜 사실상 폐지시켰다. 비변사는 조선 중종 때 처음 설치되었다.

오답분석 : ㉠ 대한제국은 양지아문(1898)을 설치하고 미국인 측량사를 초빙하여 두 차례에 걸쳐 양진 사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지계아문(1901)을 설치하여 토지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지계를 발급하였다. ㉡ 대한제국은 서북철도국을 설치하여 서울과 의주를 연결하는 경의선 부설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 대한제국은 우편학당과 전무학당을 설립하여 체신 사무원을 양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근대적 기술학교로 기계학교, 의학교, 상공학교, 외국어학교 등을 설립하였다.

(2019년 해법국사 2권, 흥선 대원군의 대내 정책, 609쪽 / 대한 제국과 광무 개혁, 666~667쪽)

(2019년 필기노트, 대한제국과 광무개혁, 128~129쪽)

18. 고려시대의 역사적 사실

정답 : ㉣

㉠ 광종 때 노비안검법에 대한 설명이다. ㉡ 경종 때 제정된 시정 전시과에 대한 설명이다. ㉢ 성종 때인 993년 거란의 1차 침입에 대한 설명이다. ㉣ 송의 사신 서긍 등이 고려를 다녀간 것은 12세기 고려 인종 때이다.

(2019년 해법국사 1권, 광종, 208쪽 / 경종, 209쪽 / 거란의 침입과 격퇴, 218쪽 / 교육기관, 303쪽)

(2019년 필기노트, 고려 초기 왕들의 업적, 42쪽)

19. 신간회

정답 : ㉡

제시된 자료는 신간회에서 발표한 강령의 내용이다. ㉡ 신민회에 대한 설명이다.

오답분석 : ㉠ 신간회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대하여 조직된 단체이다. ㉢ 신간회는 전국 각지에 조직을 확산시켜 140여 개의 지회를 구성했으며, 4만 여명의 회원을 확보하여 일제 치하 최대 규모의 합법적 민족 운동 단체로 성장하였다. ㉣ 신간회는 1929년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발생하자 이 운동을 민족적·민중적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조사단을 파견하고 민중 대회를 계획하였다.

(2019년 해법국사 2권, 애국 계몽 운동의 전개, 687쪽 / 민족 유일당 운동, 790~791쪽)

(2019년 필기노트, 신간회, 149쪽)

20. 과전법

정답 : ㉢

㉢ 과전법에 따라 경기 지방의 토지만을 과전으로 삼아 전·현직 관리에게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오답분석 : ㉠ 과전법의 실시 이후 관리에게 줄 토지가 부족하게 되자, 태종 때 과전의 1/3을 하삼도(충청, 전라, 경상)로 이급하였다. 이후 세종 때 하삼도로 이급한 과정을 다시 경기도로 환원하였다. ㉡ 과전법은 전·현직 관리에게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을 부여하였다. ㉣ 과전은 원칙적으로 죽거나 반역을 하면 국가에 반환하도록 규정되었다.

(2019년 해법국사 1권, 토지제도의 변천, 397~398쪽)

(2019년 필기노트, 토지제도의 변천, 79쪽)